

오줌 누는 꼬마 분수대

유럽의 작은 나라 중의 하나인 벨기에를 찾은 관광객들은 으레 브뤼셀 시내 한복판에서 어린이 동상 하나를 보게 된다. 벌거벗은 소년이 고추를 내놓고 소변을 보는 분수가 바로 그것인데, 이 동상은 어떤 동기에서 세워졌을까?

17세기 초 바로 이 브뤼셀 광장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. 이 나라를 침략해 들어온 스페인 군과 조국을 지키려는 벨기에 군과의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싸움이었다. 광장을 사이에 두고 양군은 서로 총구를 겨누고 설 새 없이 적을 향해 쏘아댔다.

바로 이때였다. 갑자기 전쟁고아로 보이는 한 남자 어린이가 발가벗은 채 광장의 한 가운데로 아장아장 걸어 나와서 태연하게 한 손으로 자기의 고추를 쥐고 하늘을 향해 소변을 보고 있지 않은가?

눈에 핏대를 올리고 서로 싸우던 양측의 병사들은 별안간 벌어진 그 귀여운 모습에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일제히 사격을 멈추었다.

아무리 비정한 싸움이라 하더라도 저렇게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를 다치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순식간에 양쪽 병사들 마음에 똑같이 일어났던 것이다.

불과 4~5세의 어린이가 어른들의 부질없는 싸움을 미워하는 마음에서 나온 우스꽝스러운 재치가 양쪽 병사들의 마음을 움직여 전쟁이 끝난 후, 그 자리에 양정스러운 그 소년의 동상을 세우게 된 것이다.

그리하여 그 오줌 누는 소년의 동상은 누구에게나 전쟁보다는 평화를 사랑하는 본능적인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고 있다.